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장애물을 뛰어 넘는 성경적 방법 (느 4:1-23)

The Biblical Method for Jumping Over an Obstacle (Neh 4:1-2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를 시험하셨으며 시험을 통과하자 그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시켜주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이나 모세,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이들과다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며 잘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도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보통 시험이 아닌 불같은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시험을 잘 견뎠습니다. 그냥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의 광풍을 이용해서 더 빨리 성벽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박노철 목사

God gave a covenant to Abraham, and tested him. Upon passing his test, God made him achieve the covenant that He had given him. This applies to us nowadays as well as Joseph and Moses.

Whoever, the things that we spend time suffering in must be endured with patience in order to pass through it. And only then will you experience the achievement of an amazing covenant.

Such a test approached Nehemiah. This was not a regular test but like one of fire. Nevertheless, Nehemiah didn't give up and bore it with patience. He didn't simply bear it but he accomplished the wall as quickly as he could, by using a violent gale of test.

1. 느헤미야에게 닥친 시험

산발랏과 도비야는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라고 말하며 먼저 유다 백성들의 열등감을 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의 계획이 허약하다고 야유합니다.

이처럼 사탄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며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결국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위대한 리더 느헤미야도 이러한 비난 앞에 괴로워했고, 눈물을 흘렸고, 힘들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2. 비난과 위협 앞에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이고 도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에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더욱 집중하여 성벽 재건에 힘썼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원수들의 작전은 성벽을 건축할 의욕을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실망하여 성벽 건축을 포기했다면 원수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을 했으며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가 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벽 건축을 했지만 계속되는 공격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때때로 좌절합니다. 그 때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를 기억하라”(14절)고 말합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면 두려움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 힘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던 그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억울하게 비난 받고 위협이나 방해 받을 때 기도하며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The test that Nehemiah faced

When Sanballat and Tobiah heard that the wall was rebuilt, they were greatly incensed and ridiculed the Jews. Sanballat said, "What are those feeble Jews doing? Will they restore their wall by themselves?" And he jogged their inferiority complex. Secondly, he stirred up their belief and mocked their plan of rebuilding the wall as weak.

Like this, satan would despise and mock us through anyone, and offend our minds. As a result, satan would like to kill our spirit.

Even the great leader Nehemiah was in pain, he wept, and had difficulty in all that was going on. Despite such difficulty, finally he achieved the work of rebuilding the walls of Jerusalem.

2. Before the blame and threat

When he was faced with difficulty, the first thing he had to do was pray to God. Because prayers come from our desire, our needing the help of God whom we look to, prayers are the greatest work that Christians can do.

Nehemiah honestly poured out his pain and injury to God. All the more, he concentrated his attention to work in order to rebuild the walls. The strategy of his enemies who had attacked Nehemiah was to shatter his volition in rebuilding the wall. At that time, if he had been driven to despair and had given up on the rebuilding of the wall, how much would his enemies have gloated over it? However, Nehemiah held arms in one hand, and worked very hard with the other hand, and together with whoever far away, or near, all spent their energy working very hard and with one vigilant mind.

Jews worked very hard in their mission to rebuild the wall but they were often frustrated by the enemy's attack and weak surroundings. Each time, Nehemiah said to them, "Remember the Lord!(v. 14)" If you remember the Lord of hosts, almighty God, omniscient God, and the etenal love of God, you will be able to overcome fear and frustration.

My beloved Christians!

Our greatest power is that we remember and look to God and it is a power which does not belong to the world. Nehemiah cried out to the people, that they should not be disappointed but remember the omniscient God. When we are unfairly blamed, threatened, and interrupted by anyone, we must pray. By remembering our omniscient God, I earnestly pray that all of you will come out on to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1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말씀과 기도의 2011 홍해작전이 지난 25일(토) 새벽예배를 마지막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이날 새벽 참여한 성도들은 승리를 감사하며 떡찬지를 가졌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2011홍해작전을 은혜중에 마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승전감사예배를 드린다.



맥 추 감사 절

7월3일(주) / 주일 I · II · III부 예배시간에 성찬식

7월 첫 주일이 되는 다음 주일을 우리 교회는 맥추 감사절로 지킨다. 맥추감사절은 밀 보리 수확 곧 올해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이며, 유대민족들은 유월절 다음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 지키며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십계명을 주신 날이며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로 교회의 탄생

일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절을 맞아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감사헌금을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여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한다. 찬양예배 시간에는 교육1국 어린이들이 준비한 특별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김형준 목사 초청 특별금요기도회

7월 1일 본당 2층 - 오후 8시20분



홍해작전기간 중 개인적으로 진행 된 금 적 치유사역의 선두주자이신 김형준 목사를 요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는 7월 1일 오후 8시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다. 금주 다락방 모인 20분에 동안교회 담임목사이자 한국교회 내 은 금요기도회에 연합다락방으로 모인다.

2011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2011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는 7월9일(토) 장년부, 사랑부를 시작으로 계속된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심을 얻는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부서 | 일시 | 장소 | 주제 | 강사 |
|-------|----------------|-------|--------------------------|-------------------------------|
| 유아부 | 7.24(주일)~26(화) | 서울교회 | 예수님께서 부른것이요. | 김은숙 전도사 |
| 유치부 | | | 우리가 다음세대 하나님의 일꾼이예요! | 박진아 목사 |
| 유년부 | | |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 김안성 목사 |
| 초등부 | | |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요. | 서명철 목사 |
| 중등부 | 7.25(월)~27(수) | 아가페타운 |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미래 | 박노철 목사, 박종민 목사 |
| 고등부 | 7.21(목)~23(토) | 아가페타운 | 이왕의 미래-다음세대 고등부 | 박노철 목사, 노현상 목사 |
| 사랑부 | 7.9(토)~10(주일) | 아가페타운 | 하나님의 일꾼이예요. | 한상은 목사 |
| 대학부 | 7.20(수)~23(토) | 아가페타운 | 주님과 함께가는 청년! | 박노철 목사, 유문건 목사 |
| 청년1부 | 8.14(주일)~16(화) | 아가페타운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 박노철 목사, 장석남 목사 |
| 청년2부 | 8.15(월)~17(수) | 아가페타운 | 아인과 보이스 | 박노철 목사, 황 광 목사 |
| 디아스포라 | 8.5(금)~6(토) | 아가페타운 | 새로운 부흥을 위한 우리의 도전 | 박노철 목사, 박광일 목사 |
| 에바다 | 7.28(목)~30(토) | 아가페타운 | 다음세대-에바다부 | 박노철 목사, 임규현 목사 |
| 신혼가정부 | 8.14(주일)~15(월) | 아가페타운 | 결혼,가정,자녀 | 박노철 목사, 한상은 목사 |
| 영어예배부 | 7.29(금)~30(토) | 아가페타운 | The Gospel for the World | 박노철 목사, Steven Martinovich 목사 |
| 장년부 | 7.9(토) | 아가페타운 | 다음세대를 세우는 장년부 | 박종규 교수, 정수일 목사 |

제11기 방글라데시 단기선교팀 선교바자 오늘 부터

제11기 단기선교팀(단장 : 이강진 집사)이 "2011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를 위한 바자"를 오늘부터 7월 24일까지 5주간 오전10시부터 8층 만나 홀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단기선교팀은 8월 1일(월)부터 9일(화)까지 이슬람이 85% 이상인 방글라데시로 약30명이 파송되며 조남해 선교사(어린이 호스텔사역)와 박진영, 김진성 선교사(의료사역), 그리고 스프로토 바로이 목사(다가장로교회)와 협력하여 의료 및

이미용, 어린이 사역 등의 봉사를 할 예정이다.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번 바자에 적극 동참하고, 특히 바자 물품을 많이 기증해주기 바란다.

- *바자물품 찬조 및 문의*
- 단장 이강진 집사 010-5020-8663
- 회계 양정실 권사 010-9221-7506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

(문 6) 창세기 1:1에 있는 땅과 1:10에 나오는 땅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까?

(답) : 그렇습니다. 두 경우 다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일반적인 땅이나 한정된 지역을 말하든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요 3:16에서 세상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인 인간 모두를 말하고 있으나 요1서 2:15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세상은 반역, 자기중심적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된 세상을 의미한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용어들은 문장의 전체 구조 속에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창 1:1의 땅은 하늘과 대조된 것이라면 10절의 땅은 바다와 대칭된 땅을 의미한 것입니다. 창 2:5-9의 땅은 에덴동산을 뜻하므로 문장의 상황 속에서 그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창 1:1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다는 이유로 완성이라 볼 수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1:2)는 창조 후 후속조치를 요구할 것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 1:1을 창조의 6단계의 서론으로 읽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점진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코필드 같은 이는 본래 아름답게 창조된 땅이 천사의 타락으로 황폐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2절의 동사는 과거상태(was)가 아니라 되었다(became)로 보고 이중창조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천된 것을 의미하지 않고 본래의 상태를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1:2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땅이 아직 생물들이 살만한 조직적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이중운 원로목사 순례자 칼럼 연재

-7월부터 한국장로신문에-



오래 전 동아일보에 연재되어 독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던 이중운 원로목사의 '순례자' 칼럼이 한국장로신문에 연재된다. 순례자 칼럼이 동아일보에 연재될 당시 사회의 모순, 신앙의 문제 등을 짧은 글 안에 날카롭게 다루어 독자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새로이 한국장로신문에 연재되는 새로운 순례자 칼럼 역시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해작전 스케치

마침내 승전의 날이 왔다



마침내 승전의 날이 왔다. 애굽의 군대는 수장되고, 이스라엘 된 우리는 홍해를 마른 길로 건넜다. 손에 손을 잡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로 성도의 마음을



히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며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는 말씀으로 홍해작전을 마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었다. 유아부로부터 سالم 권사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군병들은 이른 새벽 여명을 가르고, 때론 쏟아지는 빗 속을 달려와 홍해작전에 참여했다. 홍해 작전 기간 중 눈물로 기도한

문제가 응답되었다는 이, 교회에 등록된 지 얼마 안 되어 새벽기도회를 처음 나와서 은혜를 받았다는 이, 새벽마다 아기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교회에 온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다는 젊은 부부 등... 홍해 본부에 승전보가 차고 넘친다.



한 해의 전반기를 홍해 작전으로 잘 마무리 한 서울교회가 이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2011년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 하나님 앞에 칭찬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허숙 권사(편집부)

따뜻하게 감싸안았던 박노철 목사님은 어들면서 갈등과 반목만 가득한 한국 교회를 사람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빛인 우리는 착한 행실로 일어나 빛을 발하므로 기독교인으로서 의식을 가지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슬픔대신 기쁨의 화관을, 눈물과 근심대신 찬송의 웃음 입



종반부에 접

홍해작전

나의 사랑, 나의 다락방



김순영 집사 (3교구 21다락방장)

우리 다락방 가족들은 올해로 홍해작전을 다섯 번째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이맘 때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락방 가족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난답니다. 홍해작전을 통해 받을 은혜가 기대돼서죠.

그래서 저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매일 새벽 일 등 운전병이 되고 맙니다. 작은 차에 여러고성을 무너뜨릴 홍해대원들을 가득 태우고 맛있는 음식으로 잘 차려진 잔치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처럼 사실은 제가 제일 신이납니다. 그리고 은혜롭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백발이 되기까지 업어주시며 품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훌

쩍 흘쩍, 옆에 계신 집사님들이 한없이 눈물을 흘치 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마음과 마음으로 진하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5대 영양소와 각종 미네랄과 무기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속의 피와 함께 역류되어 힘이 솟아 납니다.

배불리 먹고 기분 좋아진 어린아이들처럼 다락방 가족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다락방 가족들은 올해 홍해작전을 통해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해일처럼 덮쳐오는 그 어떤 홍해라도 깨알 같은 물방울이 되어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다락방 모임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시고, 나의 부족함과 허물 많음도 탓하지 않으시는 우리 다락방 가

족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정언니처럼 다정하게 이끌어 주시는 이민숙 권사님, 분명하고 깔끔하신 최세정집사님, 항상 기쁨이 가득하신 김경진 집사님. 웃음과 행복바이러스를 옮겨 주시는 한국 최고 발레리노 이승현의 어머니 황현숙 집사님 다락방 가족들을 최고의 손님처럼 여기시며 손수 만드신 환상의 요리로 우리를 대접해주시는 막내둥이 주해민 집사님... 이분들이 나의 사랑, 나의 자랑인 다락방 가족입니다.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건너게 하시는 권능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다락방 모임을 통해 작정하신 약속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하고, 반석같은 믿음을 지키시는 복된 다락방 가족을 보시며 오늘도 기뻐 하실 것입니다

홍해작전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김은소(초등부)

이번 홍해작전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해작전 둘째 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뒤척였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오지 않고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맴돌자, 저는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께 있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잘 와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아무것도 겁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쳐 버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제 어머니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던 그 느낌이 하나님께 곁에 계시는 것을 느꼈을 때와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홍해작전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부른 찬송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저는 3절을 부르며 이전 더 이상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정말 제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 홍해작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홍

해작전에 나가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제가 되기로 했습니다. 비록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면 저는 즐겁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홍해작전을 통해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과 내가 믿으면 다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사는 제가 될 것입니다.



홍해작전에 참석한 어린이들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윤지수 (초등부)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흥해를 건너려고 교회로 향했던 나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한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웠습니다. 물론 나도 초능력자가 아니라 첫주에는 발에 100톤 짜리 쇠를 맨것처럼 발걸음 무겁고 많이 졸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큰 기쁨과 뿌듯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전 엄마 아빠께서 “지수야! 새벽...”이란 말만 하시던 정신이 번쩍 들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흥해를 건널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최효준 (고등부)



흥해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가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김과 동시에 학교가는 시간도 잘 못 맞추는 제가 과연 4시에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 믿고 흥해작전에 참가해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디어 첫날 예배에 참석해보니 이번 흥해작전의 주제에 걸맞게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참석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심지어 아주 어린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잠 때문에 고민하였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20일간 빠지지 말고 참석하여야겠다고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동의 말씀과 찬양 기도와 함께한 흥해작전이 끝났습니다. 20일간의 감동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로서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2학기 장학생 선발

신청마감: 7월17일(주일)
수여식: 8월7일(주일) 찬양예배시간에

우리 교회 장학회(회장 김대호 장로)는 2011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추천을 받고 있다. 장학금은 브리스길라, 송암,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본교회 등록된지 1년 이상자이며 교회봉사에 적극적인 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를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교회학교추천서/찬양대 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7월13일(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 (<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제출 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26일(주) 은평교회에서 설교한다. 28일(화) 전국 미자립 교회 목회자부부 세미나에서 강의한다. 29일(수) 영락교회에서 설교한다. 30일(목) “한반도 통일 공론화를 위한 열린 포럼” 축사를 한다. 7월2일(토) 사랑의 쌀 운동 조찬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이갑진 장로 : 6.29-7.4 캄보디아 기독교인 제자훈련, 우리교회 이재울 선교사와 함께 동역
- 수상 : 13교구 백승경집사(국과수 소속) ‘세계마약퇴치의 날’ 유공자 국무총리상
- 주간·식당 봉사 : 바울선교회(6.26) 엘리야선교회(7.3)
- 금주의 식사 : 9교구 이기곤 집사 김순자 권사 가정 (흥해작전 받은 은혜 감사하며)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흥해작전 승전에 감사드리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속적인 승리를 경험하도록
2.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3. 김형준 목사님 초청 금요일집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내적치유의 은혜가 넘치도록
4. 캄보디아에 파송되신 이재울/박병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흥해작전에 참석한 어린이들

신앙강좌2부 · 소요리문답1부 수료자

신앙강좌2부 수료자

고원순 박수환 곽수경2 김미경3 김미성1 김사라 김설아1 김성란2 김수경1 김순덕 김영경3 김용기 김은숙6 김정숙3 김정순6 김정자2 김지은2 김철문 김태희4 김해수 김현관 류기승 박경정 박광순 박광수 박덕호 박은영1 박인규1 박정란 박춘선 박혜선 박희실 박희석 배동금 백명자1 서은석 송인덕 송행희 신성균 신호용 안인호 안준홍 오가연 오민세 오세백 오은이 오행숙 유관모 유덕자 육순자 윤 윤 윤태욱 윤형준 이갑수 이광배 이선자1 이우성 이인보 이종창 이찬호 이창희 이태원 장호영 전숙향 전원수 정현국 조민자1 조복자 조소량 주경자 진영숙 최인수 최향숙 한선현 한춘홍 황선옥1

소요리문답1부 수료자

김규송 김택순 김상태 김은경7 박정순2 유경희 이명숙3 이옥선 이용기 최춘자1

6월 학습 · 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6월22일 수요일 1,2부 예배시 2011년 세번째 학습 · 세례식이 있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 세례자 : 김선희9 김세형 김용애 김현수7 노일영 배상준 신철수 오수만 정은주2 최운선 10명
- 입교자 : 오상석 1명 · 개종 : 김경희17 1명
- 학습자 : 김은영5 이미숙8 이창기 3명
- 유아세례자 : 박노아 손예은1 유주희2 최연재 4명 총 19명

교회는 하나님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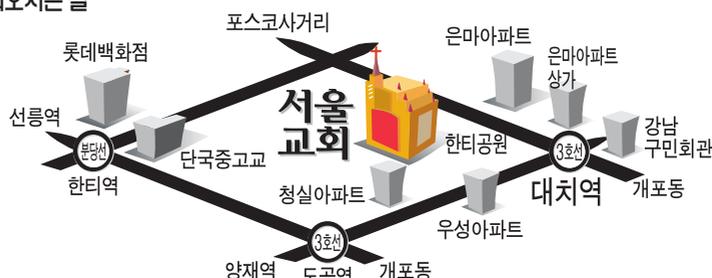
우리 교회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어 매달 정기적으로 해충예방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그동안은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만나홀과 주방을 중점적으로 해왔으나 해충의 발생이 심한 여름을 맞이하여 지난23일(목)에 교회 전층 방역을 실시하였다. 해충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와 부스러기이다. 이번엔 실시한 방역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였으나 예방은 성도들의 몫이다. 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실에서 음식물을 먹지 말고, 만나 홀에서 취식하기 바라며 먹은 후 음식물쓰레기와 부스러기는 치우는 성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와 자녀, 그리고 이웃의 건강과 주님의 집을 위해 교회청결에 힘써주길 바란다.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
| 주일예배 | I부 오전 9시 |
| | II부 오전 11시 20분 |
| | III부 오후 2시 |
| 찬양예배 | 주일 오후 5시 |
| 영어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 |
| 수요일예배 | I부 오전 11시 |
| | II부 오후 7시 |
| 금요일기도회 | 오후 8시20분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30분 |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